

2010.09. 08(수)

# 가정 경제 뉴스 브리핑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1. 금리 관련

\* '인상파' 김중수, 기준금리 이번에는 올릴까

\* 기준금리 올리자니 대외 변수 우려 vs 동결하자니 물가 상승 우려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16개월 동결'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후 지난달 다시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동결 예측이 7:3 정도로 인상을 점치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인상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미국 일부 경제지표 호조 ▲국내 경제 견고한 성장세 지속 ▲정책금리 정상화 차원 ▲물가 인상압력 완화 필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할 경우 시장의 불안심리가 조장될 수 있다며 추가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회의결과를 눈 여겨 봐야 하겠습니다.

## 2. 출산대책 관련

\* 육아휴직급여 月 최고 100만원 준다

저 출산 현황이 심각을 넘어서고 있음을 정부에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휴직한 근로자에게 매월 최고 100만원(현재 월 50만원 정액) 한도 내에서 출산 전 임금의 40%를 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대신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탄력근무제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부는 이때 줄어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보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자격기준이 되는 근로자 소득계산 방식을 현행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 지원대상을 늘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부 도움을 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 3. 정보 관련

- \* 무료 재테크 가이드북 이용해 보세요.
- \* 한국씨티은행, 자산관리 가이드 시리즈 출간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 www.citibank.co.kr)은 고객 및 일반인을 위한 '자산관리 가이드 시리즈(Managing Your Wealth)'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북 시리즈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 투자의 기본적인 지식부터 자산관리에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씨티은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에서 총 6권으로 제작한 것 중 국내 사정에 맞는 3권을 선택하여 영/한글 합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향후 삶의 각 단계 및 연령대별 고객들에게 재정적 필요 및 재무 설계 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금융과 자산관리 등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설계> 편에서는 예산수립의 원칙, 현금과 지출 관리, 신용도의 중요성, 적합한 목표설정, 각자에게 맞는 보험 선택 방법, 퇴직 생활 설계 등의 주제를 쉽게 설명합니다. <수익증대를 위한 투자> 는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등을 설명하며, <노후 설계> 에서는 앞날에 대한 예측과 현명한 계획을 통한 은퇴 준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적정 투자수익률 유지와 자산 분배의 단계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요대학교 도서관 및 경제분야 동아리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를 실시하고 있어

